

HRD 4월의 이슈

-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으로 공공조달 분야의 전문성과 혁신을 이룹니다.
- 폐광 이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광산 근로자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 장기 '쉬었음' 청년 77%가 불안, 그러나 85%는 '삶에서 일이 중요'



능력개발교육원
マイクロラーニング コン텐츠 제공
60개



2025년 일반고 재학생
특화 직업훈련 과정
527개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청년 맞춤형 교육 제공
2,815명



2월 고용시장,
역대 최고 고용률 달성
61.7%

Vol.109
April 2025 **04**



‘공공조달관리사’ 신설로 공공조달 분야의 혁신적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해당 자격은 공공조달 시장의 규모 확대와 참여자 증가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신설됐으며, 공공조달 컨설팅 및 납품업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공공조달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

책의 제목을 클릭하거나, 책의 끝단을 클릭한 채로 넘겨주세요.

HRD 스페셜

- 04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으로 공공조달 분야의 전문성과 혁신을 이룹니다.
- 04 폐광 이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광산 근로자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 05 장기 ‘쉬었음’ 청년 77%가 불안, 그러나 85%는 ‘삶에서 일이 중요’

HRD 현장

- 08 “직업능력개발 훈련교·강사님 ‘마이크로러닝’ 경험하세요”
- 09 일반고 학생들의 취업 자신감! 특화 직업훈련으로 미래를 준비하세요
- 09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2025년 해외취업연수사업 참가자 모집
- 10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AI 혁신에 고용노동부와 공인노무사회가 힘을 모운다
- 11 노동권의 침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까운 곳에 든든한 지원단이 있습니다!
- 12 일·생활 균형, 어떻게? 이렇게! 중소기업도 우수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13 우리가 일·생활 균형 대표기업! 올해 우수기업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 13 우리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노하우를 봤나주세요!
- 14 ‘공공데이터’로 창업에 도전하세요!
- 15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인재를 찾습니다!
- 17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 따로 있다!”



cover story
공공조달관리사, 미래를 여는 신뢰의 파트너로서 투명한 공공조달 환경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통 권 제109호
발행일 2025년 4월 21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 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국
052-714-8264
구독신청 및 문의 ws0920@hrdkorea.or.kr

NCS 뉴스레터

- 18 2025년 직무능력은행 교과 인정 컨설팅 운영기관 모집
- 18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통합 저축·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을 소개합니다.

고용 BRIEF

- 19 2025년 2월 고용동향 분석

연구 INSIDE

- 20 2025 Global Human Capital Trends
- 20 직업훈련기관 전문경영역량 고도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 21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직업훈련 교·강사 실태조사 심층분석 및 활성화 모델 연구
- 21 제26차(2023)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기관 LINK

- 22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직업능력개발사업 insight

- 23 HRDK 백배 활용법(능력개발전담주치의)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으로 공공조달 분야의 전문성과 혁신을 이룹니다.



2025년 3월 4일, 관계부처합동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으로 공공조달 분야의 전문성과 혁신을 이룹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3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조달관리사’는 공공조달 규모 및 시장참여자 확대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공공조달 컨설팅, 조달 물품 검사검수의 납품업무 지원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구분 | 연도 | '14년 | '16년 | '18년 | '20년 | '22년 | '23년 |
|------------|----|---------|---------|---------|---------|---------|---------|
| 총 계약규모(조원) | | 111.5 | 116.9 | 141.3 | 175.8 | 196.0 | 208.5 |
| 조달기업(개) | | 293,418 | 348,069 | 400,915 | 471,100 | 536,305 | 572,118 |
| 발주기관(개) | | 48,681 | 52,223 | 55,040 | 60,964 | 66,271 | 69,106 |

* 출처: 조달사업 통계(조달청 홈페이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관리사의 등급을 단일등급으로 정하면서 검정 기준*도 마련했으며,

* 1. 공공조달에 관한 전문지식 및 분석능력의 보유 여부

2. 공공조달 전(全)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시험과목, 출제기준 마련 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25년 하반기 공포 예정)을 거쳐 2026년부터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과목(안)] △필기시험(지필형, 객관식): 1.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2.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3. 공공계약관리 △실기시험(필답형): 공공조달관리 실무

폐광 이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광산 근로자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2025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폐광 이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 광산 근로자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 강원도·삼척시·대한석탄공사와 “광산근로자 전직훈련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3월 31일(월) 15시, 강원도 삼척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폐광근로자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을 시행하기 위해 강원도, 삼척시, 대한석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계광업소는 1936년 개광 이후 88년간 석탄을 생산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 석탄 광산 중 하나였으나 오는 6월 폐광이 확정됨에 따라 광산 근로자 274명의 실업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자체, 석탄공사와 협력하여 광산 근로자의 원활한 전직 지원을 위한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지원·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장 기반 훈련을 제공하여 재직자 고용유지 또는 이·전직, 실업자의 취·창업 등을 지원

이번 협약은 직업훈련기관이 부족한 도계 지역에서도 근로자들이 필요한 훈련을 충분히 받아 새로운 분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돋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광산 근로자들의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다른 지역 훈련기관이 도계 지역 내에서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의 지역 제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훈련기관

에게도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대비 최대 300%까지 훈련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도와 삼척시는 실습 훈련장 등 지자체 보유 시설*을 제공해 훈련 여건을 마련하고, 훈련 수료 후에는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재취업 기회를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 지자체 훈련장소 제공: 지게차 운전<심포 뷔티스마켓>, 용접<소방 방재 연구센터> 등 대한석탄공사 역시 근로자들이 근무로 인해 훈련 참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순환 근무제, 유연출퇴근제 도입 등 원활한 훈련 참여를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울러 고용부는 중장년 근로자들의 실직 불안 해소와 전직 준비를 돋기 위해 ‘중장년 생애경력설계’ 상담과 더불어, 폴리텍 강릉캠퍼스 내 ‘신중년 특화과정’을 주말 과정으로 운영해 훈련 참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부 김문수 장관은 “그간 아둡고 위험한 쟁도 속에서 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광산 근로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고용부와 강원도, 삼척시, 대한석탄공사가 힘을 합쳐 광산 근로자의 새 출발을 돋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했다. 또한, “훈련기관 규제 완화, 훈련비 및 실습장 지원 등 현실적인 병행부터 제도적인 지원까지 정부와 지역사회가 산업 변화 과정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기 ‘쉬었음’ 청년 77%가 불안, 그러나 85%는 ‘삶에서 일이 중요’



2025년 3월 11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장기 ‘쉬었음’ 청년 77%가 불안, 그러나 85%는 ‘삶에서 일이 중요’!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개최,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결과 및 지원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3월 11일 오전 10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5년도 청년고용 포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학계 및 현장 전문가와 함께 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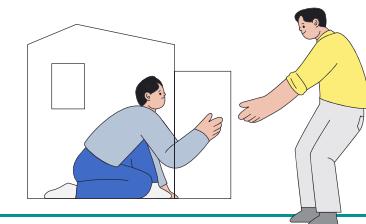
이날 포럼에서는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와 수도권·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를 통해 본 ‘쉬었음’의 원인을 논의했다.

먼저, 한국고용정보원이 1년 이상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경험이 없을수록,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과거 일자리가 저임금·저숙련·불안정할수록 ‘쉬었음’ 상태로 남아있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을 택한 사유는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과 교육·자기계발(35.0%)이 가장 많았으나, 번아웃(27.7%)과 심리적·정신적 문제(25.0%)를 꼽은 응답도 상당했다. 또한, ‘쉬었음 상태가 불안하다’고 답한 비율이 77.2%에 달했는데,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인식은 줄어들고 ‘힘든 시간, 구직 의욕을 잃게 만든 시간’이라는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들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84.6%는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7.3%는 향후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취업에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 생활비 지원보다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알선·정보제공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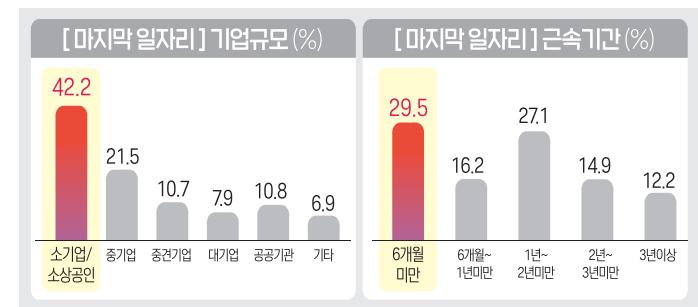
<장기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 주요 결과> – 한국고용정보원

- ① 대상 구직급여 수급(모수 약 1만명, '24.9월말 기준)·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수료(모수 약 9만명, '24.10월 기준) 후 1년 이상~3년 미만 미취업 청년(15~34세) 3,189명 (한국고용정보원, '24.12~'25.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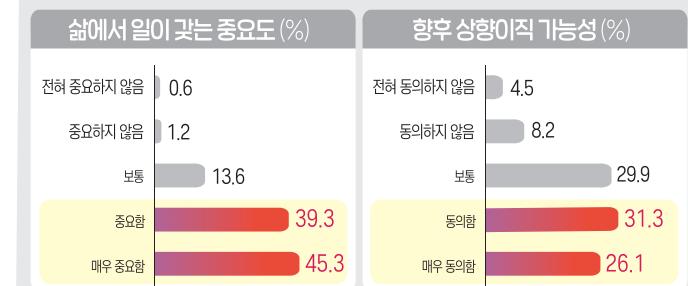
장기 쉬었음 청년 구성

- ✓ 쉬는 기간 평균 22.7개월, 4년 이상 쉬는 청년도 약 11%
- ✓ 근로소득 경험 근로소득 경험이 있는 청년이 87.7%
- ✓ 마지막 일자리 제조업(14.0%)·숙박음식업(12.1%)의 소기업·소상공인(42.2%) 비중이 높고, 주로 수도권에 소재(53.3%)
- 근속기간은 '6개월 미만'이 29.5%로 가장 높으며, 평균 17.8개월, 임금 수준은 주로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48.8%)
- ✓ 지역 쉬었음 상황은 수도권 대학이나 지방대 졸업생 간 무차별
- * 단, 대학을 졸업한 곳에서 이동하여 다른 지역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현재 취업했을 가능성 高 (취업 의지가 더 강할 가능성 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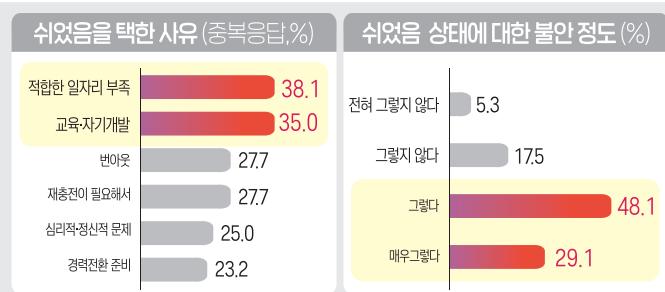
장기 쉬었음 청년의 가치관과 희망사항

- ✓ 쉬었음 청년의 대부분(84.6%)은 삶에서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
- 절반 이상이 일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나아질 수 있으며(56.3%), 향후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할 수 있다고 생각(57.3%)
- ✓ 쉬었음 청년의 68.4%는 향후 1년 내 취·창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향후 취업준비에 상당한 시간·노력을 투자할 계획(60.9%)
- 절반 이상(52.8%)이 추가로 준비기간을 갖기를 희망하며, 향후 준비기간은 최소 4.0개월~최대 10.2개월
- 주로 직장·조직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근무(69.3%)하기를 원하며, 직장 선택 시 급여·근무시간(각 4.31점)이 가장 중요
- 일반 청년들보다 실제 직무가 자신의 적성·흥미나 입사 당시 희망했던



쉬는 기간 중 상태

- ✓ 쉬었음 택한 사유 적합한 일자리 부족(38.1%), 교육·자기계발(35.0%)이 가장 많으나, 범아웃(27.7%), 심리적·정신적 문제(25.0%)도 상당수
- ✓ 주된 활동 교육·자기계발(55.5%)과 휴식·재충전(52.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특별한 활동이 없었던 경우도 상당수(20.3%)
- ✓ 심리상태 절반 이상(58.2%)은 쉬 기간을 '경제적·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으로 평가
- 쉬었음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충전의 시간이라는 인식은 감소, 힘든시간, 구직 의욕을 높게 만든 시간이었다는 인식 증가
- 쉬었음 상태가 불안하다는 답변은 77.2%에 달하며, 경제적어려움(71.1%) 외에 자신감 하락(62.5%), 미래대비 미흡(53.9%)도 상당



정책지원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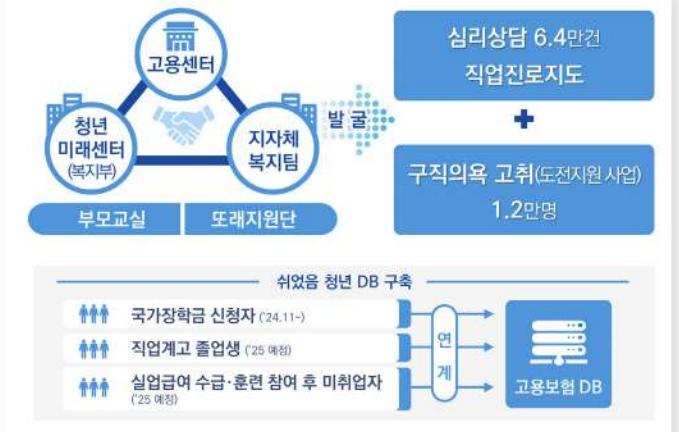
- ✓ 취업에 필요한 도움 생활비 지원(50.6%)보다 직업훈련·교육(59.3%), 취업알선·정보제공(54.7%)을 높게 평가
- 1:1 맞춤형 상담(32.0%)이나 직접체험 프로그램(31.6%) 수요가 높고,

< 수도권-지역 간 청년 일자리 격차 추세 >- 한국노동연구원



일자리 분포

- ✓ 취업자 수 비수도권 취업자 수가 더 많으나, '18년 이후 격차 감소
 - '13년~'20년 기간 중 비수도권 총 취업자 수가 수도권보다 많지만, '18년 이후 비수도권 취업자 수 감소, 수도권과의 격차 감소 추세
- * 취업자 수('20): 비수도권 13,101천명 vs 수도권 13,097천명
- ✓ 청년<15~34세> '18년 이후 수도권 청년 취업자 수 확대 심화, '20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비율*은 31.7%까지 확대
 - * (수도권 취업자 수-비수도권 취업자 수)/비수도권 취업자 수 × 100
- ✓ 업종별 광업·제조업은 비수도권이 많으나, '15년 이후 감소 추세, 정보통신업은 '18년 이후 수도권에서만 증가 추세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AI 혁신에 고용노동부와 공인노무사회가 힘을 모은다



2025년 3월 4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AI 혁신에 고용노동부와 공인노무사회가 힘을 모은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공인노무사가 AI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후 4월부터 대국민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5년 3월 4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약자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AI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인노무사 173명 규모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이 구성되어 상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 재학습과 상담 품질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진정서 접수 지원 등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공개 이후 1달간의 테스트 기간에 국민 2,528명이 11,682회 사용했으며, 국민 658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3점으로 **상담의 신속성과 접근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QR 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여 사용 가능 진정서 접수 지원, 참고자료(법령, 각종 지원제도 매뉴얼 등) 대화형 검색 서비스는 <https://ai.moel.go.kr> 접속하여 사용 가능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 (원문 그대로 인용)

| | |
|---|--|
| 질문이 두루뭉술해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줌 |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회초년생 친구들에게 공유를 해주어서 다같이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
|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폰으로 그때그때 검색할 수 있어서 편했어요 | ai라서 별 생각 없었는데 부당하고 마음이 너무 안좋았는데 그런 마음까지 헤아려 줌 |
| 대면으로 대화하면 좀 마음 편히 못 물어볼 것도 여러번 물어볼 수 있음 | 정부에서 이런 혁신을! |

다만, 상담 정확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하여 한 달 동안 **AI 재학습 및 상담 품질 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4월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공인노무사회 누리집에 AI가 학습한 노동법 데이터를 공개하여 공인노무사 누구나 개선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되는 정책이나 판례, 법령해석 등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상담의 정확도를 확보할 방침이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현장에 자리 잡으면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약자가 자기 권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사업장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고 지키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AI 노동법 상담을 계기로 노동법에 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공인노무사 서비스 시장도 성장하여 AI와 전문가가 상생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 기꺼이 나선 공인노무사회에 깊이 감사”하며,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넘어 고용노동행정 전반을 AI로 혁신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박기현 회장은 “AI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공인노무사와 AI의 협업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발사인 (주)마음AI의 최홍섭 대표는 “AI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뛰어넘어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라면서, “고용노동부의 도전 사례가 우리나라 정부 전반에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노동권의 침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까운 곳에 든든한 지원단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10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노동권의 침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까운 곳에 든든한 지원단이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 34개 지자체 선정
- 3월부터 노동약자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서비스 본격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월부터 「**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약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가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곳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해당 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70~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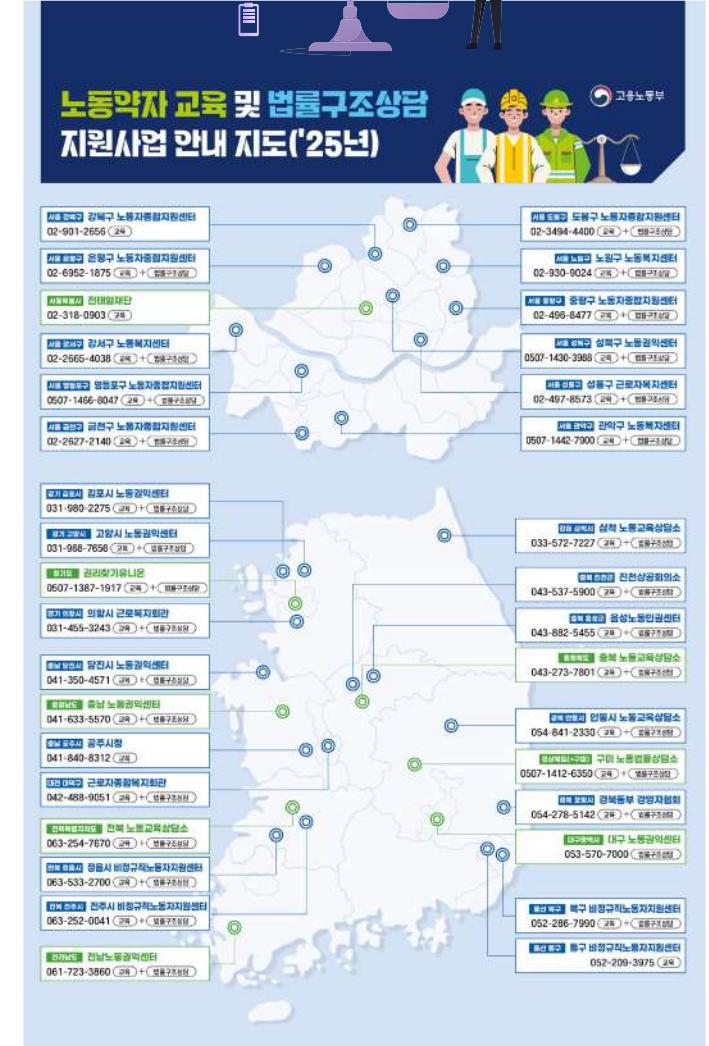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 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24년부터 시행 중이다**」.

임금체불이나 지장 내 고립, 부당하고 등에 대한 대응 교육, 노무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법률 상담, 지방노동관서 및 노동위원회와의 연계 등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 등을 주로 하면서, 자치단체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인식개선 캠페인 등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사업도 추진된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5,830명의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영세사업주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덧붙여 고용부는 지난해 전국 6곳에 설치(서울, 평택, 청주, 대구, 부산, 광주)한 「**근로자이음센터**」에서 올해부터 플랫폼·프리랜서 대상 계약·보수 관련 분쟁상담·조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 이 사업의 교육·상담자들도 필요한 경우 근로자이음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일터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라고하면서, “지자체, 근로자이음센터, 지방노동관서 등이 긴밀히 협업해서 노동약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사업을 내실있게 진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어떻게? 이렇게! 중소기업도 우수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3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일·생활 균형, 어떻게? 중소기업도 우수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집」발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

장성에 소재한 건축자재 제조업 회사인 제이엔티(주)(제조업, 22명) 이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업 운영에 고민이 깊어졌다. 9시부터 6시까지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빨 빠른 거래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직원들의 업무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이 든 이사는 재택근무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한다. 효율적이고 직원별 상황에 맞는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에 따라 제이엔티(주)는 근로시간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매출 30% 증가, 고용률 15% 증가라는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

고용 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2024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집」을 펴냈다.

사례집은 지난해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203개의 기업이 운영 중인 유연근무, 임신 및 육아 근로자 지원, 휴가제도 등 일·생활 균형 활용 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이중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규모·지역·업종별 25개 기업은 현장 인터뷰를 통해 더욱 생생한 이야기를 수록했다.

특히 사례집은 단편적인 제도의 소개보다는 왜 제도를 도입했는지에 대한 선택의 이유를 함께 다루고 있어 기업 생산성, 인재 확보, 장시간 근로, 육아 여건 조성 등 노사 공동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일·생활 균형 제도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기업 경영진이나 인사담당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

앞서 소개된 제이엔티(주)(제조업, 22명)는 유연근무 외에도 매월 1시간 조기퇴근, 생일 조기퇴근 등 휴식도 쟁취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줄이고 효율을 높였다. 신승관 대표이사는 “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역량이 높아져야 한다.”라며 “직원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한 해답은 ‘균형’이다.”라고 말했다.

(주)씨넷(제조업, 91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방법을 일·생활 균형에서 찾았다. 엔지니어를 포함한 다양한 직군에서 유연근무를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없앴다. 또한 육아휴직 통합신청프로그램으로 육아휴직 외 출산휴가,



우리가 일·생활 균형 대표기업! 올해 우수기업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2025년 3월 24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우리가 일·생활 균형 대표기업! 올해 우수기업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5일,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모집 공고(3.25~6.5.)



◎ “육아휴직 후 복직해보니 ‘육아시간’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어 4시 퇴근하며 어린이집 하원 걱정을 덜었죠. 직원 개개인의 삶에 회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배려한다는 생각에 고맙고 뿌듯해요”
('24년 우수기업 주코워кс 직원)

◎ “일·생활 균형 제도로 임직원의 업무 집중도를 향상시키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물론이고 채용 면접 진행 때 우리 회사만의 특별한 근무환경에 대해 굉장히 매력을 느낀다는 지원자가 많습니다.” ('24년 우수기업 라온시큐어(주) 대표이사)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3월 2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관계부처와 경제단체가 합동으로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일·육아 병행, 기타 일하는 방식·문화 등을 심사하여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금리 우대 등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혜택 외에도 출입국 우대, 고용24 내 별도 채용관 운영, 정부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3월 25일(화)부터 6월 5일(목)까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일생활균형(www.worklife.kr), 고용노동부(www.moel.go.kr) 및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 게재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집 등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월 5일까지 신청접수가 끝나면 서면심사(7월), 현장실사(8~10월), 최종심사(11월)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되면 11월 관계부처·경제단체 합동 시상식을 통해 선정서(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우리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노하우를 봄내주세요!



2025년 3월 23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우리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노하우를 봄내주세요!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민간), 교육부(공공), 3.24.(월)~5.22.(목)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모집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4일(월) ‘2025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은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알리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1,865개(민간 1,112개, 공공 753개) 기관이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은 3월 24일(월)부터 5월 22일(목)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 (민간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누리집(<http://www.hrd4u.or.kr/hrdcert>)
(공공부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누리집(<http://www.krivet.re.kr>)

<민간 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접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능력개발 클리닉 참여기업」, 「공정채용 어워즈 수상기업」에 대한 가점(2~3점)을 신설하였으며, 인증 기업은 △정기근로감독 3년 면제, △공공입찰 및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임영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준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지원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많은 기업이 참여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공 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온라인 및 우편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공공부문에서는 다양한 인재 채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하여 작년부터 인증 심사지표에 지역인재, 고졸인재 채용에 관한 지표*를 추가했다.

* (지역인재) 대출 신규 채용자 중 비수도권 대학 졸업(예정자), (고졸인재) 신규 채용자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비율

인증받은 기관 중, 기관 유형별 최고 득점 4개 기관의 업무담당자들 외에도 지역인재·고졸인재 채용 활성화 등 정부 시책 반영이 우수한 1개 기관 역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4월 중에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 이주희 인재정책기획관은 “디지털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공공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조직 구성원의 공정한 채용, 합리적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공공기관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사례집은 일생활균형(www.worklife.kr),
고용노동부(www.moel.go.kr) 및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사례집을 참고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일·생활균형제도 도입과 여건 조성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에 대한 장려금, 인프라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데이터'로 창업에 도전하세요!



2025년 3월 9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공공데이터'로 창업에 도전하세요!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4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개최, 3월 10일(월)부터 접수
- 시상금 총 1,800만원, 수상작 총 14점
- 수상작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추천(최우수작), 대국민 홍보 등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과 함께 「제4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작품은 3월 10일(월)부터 5월 15일(목)까지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고용노동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아이디어 기획

최우수상(장관상, 1점, 200만원)
우수상(주관기관장상, 2점, 100만원)
장려상(후원기관장상, 4점, 50만원)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최우수상(장관상, 1점, 400만원)
우수상(주관기관장상, 2점, 200만원)
장려상(후원기관장상, 4점, 100만원)



또한 전문가 멘토링(발표 코칭 등),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추천(분야별 최우수작), 유튜브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 2024년 아이디어 기획 분야 최우수작인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종합 플랫폼"(잠생각팀)이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2등) 입상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안전보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다양한 데이터 제공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공공데이터가 산업 혁신과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공단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응모 방법과 공모전 관련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접수 홈페이지(www.2025datacontest.co.kr),
전자메일(2025datacontest@thinkcontest.com)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인재를 찾습니다!



2025년 3월 16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인재를 찾습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 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3월 16일(일)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기업에 궁금한 사항 위주로 2021년부터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동향을 조사해 왔다.

*('21 입사지원서 및 면접 시 주요 평가요소 ('22 채용결정 요인, AI면접, 문과 전공이 채용에 미치는 영향 등

(23) 청년이 중점을 두어야 할 취업 준비 사항, 채용에서 AI활용 등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387개소 응답, 응답률 77.4%)으로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채용 브랜딩* 등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 채용시장의 수많은 회사 중에서 우리 회사만의 매력을 찾아 알리는 일

❖ 기업의 조직문화와 지원자와의 적합성 확인 후 채용 61%

응답 기업(387개)의 61%는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와 조직문화의 적합성을 살펴보는 컬처핏 확인을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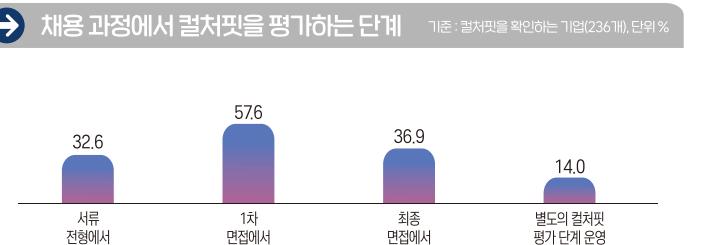


컬처핏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인적성 검사(64.0%)를 활용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고, 실무 면접(56.8%), 자기소개서(46.2%), 임원면접(41.5%) 순으로 조사되었다. 갈등 해결 방식, 팀 프로젝트 경험, 작업 환경 변화 시 어떻게 적응했는지,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와 그 이유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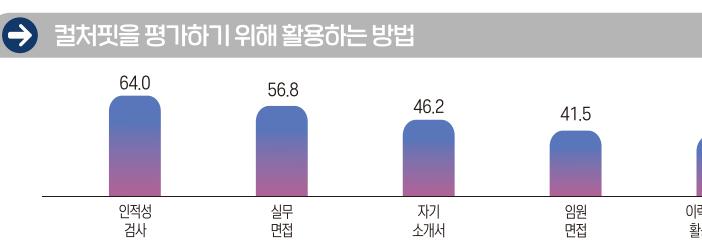
컬처핏은 컬처(Culture, 문화)와 핏(Fit, 적합)의 합성어로 '문화 적합성'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한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이 조직의 문화와 얼마나 잘 맞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지원자가 우리 조직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조직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할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직무수행능력과는 별개로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일하는 방식이 맞아야 팀워크가 잘 되고 장기근속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실제로 기업은 컬처핏 확인을 통해 '조직 및 업무에 대한 빠른 적응'(69.5%), '기준 구성원과의 협업 향상(갈등감소)'(49.2%), '이직률 감소'(27.1%)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컬처핏을 평가하는 단계는 1차 면접 57.6%, 최종 면접 36.9%, 서류전형 32.6% 순이었고, 별도의 컬처핏 평가단계를 운영*하는 경우도 14%로 나타났다.

* (예시) 네이버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기업 문화적합도' 검사, LG 에너지솔루션은 '컬처핏 전형' 단계를 운영, CJ는 계열사에 따라 서류전형과 1차 면접 사이, 또는 1차 면접 후에 'CJ 컬처핏 test' 진행 등(각 기업 채용사이트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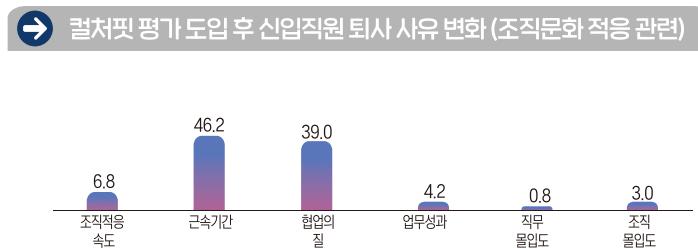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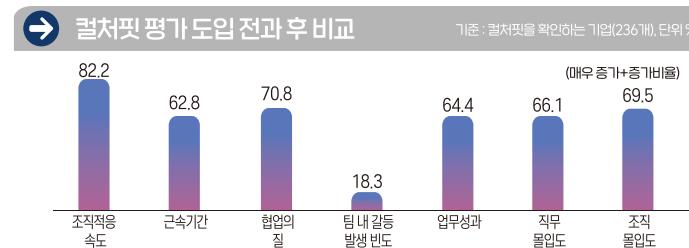


질문함으로써 지원자가 그 기업에서 바라는 인재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테슬라 대표 일론 머스크가 입사 면접에서 매번 지원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당신이 살면서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와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 자세히 말해달라"는 것이라고 한다.



응답기업의 82.2%는 컬처핏 평가 도입 이후 '조직적응 속도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협업의 질 향상'(70.8%), '조직몰입도 증가'(69.5%) 순으로 실제 효과를 체감하고 있었다. 또한 '조직문화 적응과 관련하여 퇴사하는 신입직원이 감소했다'고 답한 기업도 53%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기업이 컬처핏 확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구직자는 입사하려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의 인재상과 조직문화를 탐색하고 그에 맞춰 채용 전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취업지원 및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기업별 조직문화 파악에 도움

기업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나 기업의 조직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혼자 다양한 기업의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돋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작된 「한국형 청년 취업지원 보장제」로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졸업생 약 5만명에게 1:1 상담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졸업생 프로그램에서는 기업별 채용공고 분석에 기반해 이력서 첨삭·모의면접을 지원하거나, 목표기업의 현직자와 만나는 멘토링 과정을 운영한다. 이외에 지역 거점 4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 전국 121개 대학에 설치된 취업지원센터로, 청년이면 누구나 서비스 받을 수 있음

** AI기반 잡케어(Job Care)로 개인의 직무역량을 진단하고 경력설계·유지·전환 등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

대학 졸업생 반○연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원기업 및 직무 분석 특강을 통해 기업의 인재상과 직무 적합성을 살펴보고, 지원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하는 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다.

* 맞춤형 희망 채용공고 분석 및 입사지원서 피드백 등 주제로 운영

담당 컨설턴트 정다운은 “요즘 청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스토링텔링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래서 1:1 집중 상담을 통해 그들의 경험과 성향을 확인하고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기술서 등을 작성할 때 기업과의 적합성을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을지 클리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기업도 핵심가치와 조직문화 공개·공유를 통해 우수인재 영입 전략 필요

채용 자체가 기업의 홍보활동이 되는 채용브랜딩이 대두되면서 기업들도 조직문화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 홈페이지에 인재상과 핵심 가치, 조직의 비전을 게시하는 것은 물론,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그 기업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널리 알리려고 한다. 이와 같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기업에 적합한 인재의 지원을 유도하고 채용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채용 단계별 직무분석, 채용브랜딩 구축, 신규

직원이 조직 문화 · 가치에 잘 적응하도록 돋는 온보딩 설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하고 있고, 올해는 중소기업 채용관리솔루션(ATS)**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맞춤형 인재 채용을 위한 효과적 채용제도 설계, 채용과정 통합관리 등에 관심이 있는 2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지원

** AI 등을 통한 채용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시스템(Applicant Tracking System)

━ (주요기능) 채용홈페이지/채용공고문 제작 지원(채용절차법 등 채용 관련 법 필터링 등), 지원서 관리, 채용일정 관리안내(서류 접수 통지, 합격/불합격 통지, 불합격 사유 피드백) 등

이상돈 사람인 컨설팅사업부문장은 “컬처핏 확인을 통해 온보딩이 가능한 인재를 뽑는 것은 퇴사율을 낮추고 핵심 인재의 장기근속으로 이어져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면서 “구직자들이 기업 문화를 잘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조직문화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은 모든 조직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다. 치열한 경쟁 속에 기업은 자신의 조직에 맞는 인재를 채용해서 실무에 바로 투입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청년들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추어 입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채용관리솔루션 지원을 통해 공정채용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히며 “아울러, 3월 19~20일 개최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돋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 따로 있다!

2025년 3월 20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 따로 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전기산업기사·산림기능사·산업위생관리기사 취득 시 1년 이내 취업률 70% 이상

- 기사 등급 자격증 취득자 1년 이내 58.9%가 취업 성공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고용경쟁력 강화를 위해 취업에 유리한 국가기술자격을 분석*해 공개했다.

* 20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2024년 고용상태를 건강·고용보험 가입 여부 분석

국가기술자격이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74만 명, 2023년 취득) 중 미취득자(44.5만 명, 60.1%)의 절반



정도(47.5%)가 1년 이내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취득자와 미취득자의 취업률 차이는 7.9%p이며, 취업자 1만명 이상 기준으로 기사 등급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58.9%), 산업기사 등급(56.2%), 서비스 분야(47.3%), 기능사 등급(44.1%) 순이다. 가장 많이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은 컴퓨터활용능력, 지게차운전기능사, 산업안전기사, 굴착기운전기능사, 전기기능사 순이다.

[자격취득자가 많은 상위 7개 종목(명)]



취득인원 1,000명 이하 200명 초과인 종목은 에너지관리산업기사(79.4%)와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76.9%)의 취업률이 높았고, 취득인원이 200명 이하인 종목 중에서는 승강기기사(82.1%) 및 생산자동화산업기사(81.1%)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들이 선호하는 자격과 취업률이 높은 자격에 차이가 있었으며, 직종규모에 따라 취업 경쟁력이 높은 자격 또한 달리 나타났다.

취업률 높은 국가기술자격 TOP 3

1위 전기산업기사(73.9%) 2위 산림기능사(71.9%) 3위 산업위생관리기사(71.5%)

미취득자 기준으로 취득인원이 1,000명 초과한 자격 중 취업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전기산업기사(73.9%), 산림기능사(71.9%), 산업위생관리기사(71.5%)로 나타났다.

연령별, 성별에 따라 유망한 자격증도 다릅니다

1,000명을 초과한 미취득자가 취득한 자격 기준으로 연령별, 성별에 따라 취업률이 높은 자격 또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 취업률이 높은 자격증을 살펴보면, 청년층(19~34세)은 기계정비산업기사(67.5%), 전기산업기사(64.3%), 산업위생관리기사(61.2%)



순이고, 고령층(55세 이상)은 전기기능사(58.1%), 한식조리기능사(54.3%), 조경기능사(50.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성 취득자의 취업률이 높은 자격은 기계정비산업기사(67.0%), 전기산업기사(66.9%), 공조냉동기계기능사(57.9%) 순이고, 여성은 웹디자인기능사(57.8%), 컴퓨터활용능력2급(53.3%), 직업상담사2급(51.5%) 자격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성별 분석결과 집단별 선호하는 자격과 취업률이 높은 자격이 달라 개별 특성에 맞는 취업전략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임영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민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자격을 취득하고

있어, 많이 취득하는 자격과 취업이 잘 되는 자격에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는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구직자들이 취업에 유리한 자격을 선택하여 취업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 데이터를 디각도로 분석해 국가기술자격이 직업능력개발과 국가 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NCS 동향



2025년 직무능력은행제 교과 인정 컨설팅 참여 대학 모집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은 재학생과 졸업생이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대학 교육으로 습득한 직무능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여 취업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 '24년 기준 동의과학대 등 34개 대학, 438개 교과 인정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서비스되는 정보들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공되는데 대부분이지만, 교과 인정 사업은 인정받은 각 대학에서 이수자 정보를 등록하여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교과 인정 컨설팅은 교과 인정 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교과 내용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와 교과 인정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참여하는 대학에는 교과 분석 등을 통해 컨설팅 교과에 맞는 NCS 능력단위 매칭과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최종 교과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교과 인정 컨설팅은 전문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후 진행되며, 5월~8월 사이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교과인정 심사는 8월 접수 후 9월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상황에 따라 일정 등 변경 가능

NCS 스페셜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통합 저축·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을 소개합니다.

<http://bank.ncs.go.kr>

직무능력은행

아직도 따로 발급받고 계시나요?

이제는 **직무능력인정서** 하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무능력은행이란? 개인이 생애에 걸쳐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인사배치 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관리 시스템입니다.

▶ 직무능력 시스템을 통해 나의 자격·교육·훈련·경력 정보가 자동으로 계좌에 저축됩니다.

▶ 직무능력 인정서 발급 내 직무능력정보는 원하는 정보만 선택하여 ‘직무능력 인정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직무능력은행”을 입력해보세요
<https://bank.ncs.go.kr>

자격

- 544종 국가기술자격(검정형, 과정형) 정보
- ※ 8개 수탁기관 국가기술자격 포함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광해방업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 일학습병행 자격 정보
- 국방부 자격 12종

훈련

- HRD-Net 직업훈련 과정 이수 정보
- 사업주 사업주훈련(자체/위탁), 컨소시엄훈련, 지역산업맞춤형훈련
- 개인 내일배움카드훈련(국가기강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직종, KDT 등)
- 일학습병행 일학습병행훈련, IPP 등

교육

- 대학교 교과인정사업으로 인정된 24개 대학 64개 교과('23년 기준)
- 한국폴리텍대학 위탁교육 정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계좌제 학습 이력
- 고등학생 NCS기반 전문교과 이수 정보(NEIS 연계)

경력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 정보 (일용, 상용)
- 국세청(홈택스) 개인사업자등록 정보
- 국방부 군 경력정보(군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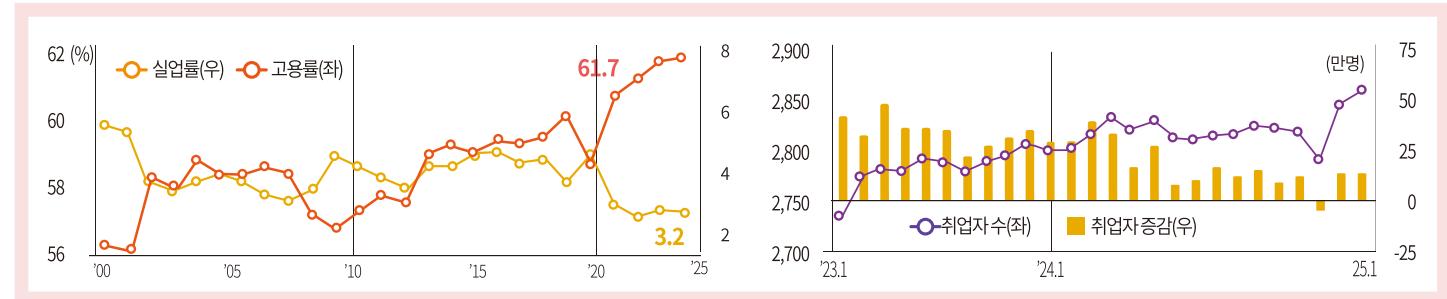
2025년 2월 고용동향



고용노동부, 2025. 3. 12.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2025년 2월 고용동향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고용률(61.7%) 2월 역대 1위, 경제활동참가율(63.7%) 2월 역대 1위, 실업률 3.2%, 취업자수 +13.6만명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 63.7%로 +0.1%p 상승
- 실업률 3.2% 전년대비 보합
- 취업자수 전년대비 +13.6만명 증가,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2개월 연속 증가

” ⇒ 15세 이상 고용률 · 실업률(원계열, 매년 2월) + 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원계열, 계절조정, 전년비)



- ▣ (산업) 서비스업 증가폭 확대, 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 감소
- 서비스 48개월 연속 증가 지속, 증가폭 확대(+34.9→+40.1만명)
- 보건복지(+19.2만명) · 공공행정업(+3.8만명) 증가폭 확대
- 전문과학(+8.0만명)-정보통신(+6.5만명) 증가 지속
- 도소매업(△6.5만명) 감소폭 축소, 사업시설업(△7.4만명) 감소폭 확대
- 제조 일평균 수출 둔화 등으로 고용 감소폭 확대(△7.4만명)
- 건설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감소 지속(△16.7만명)
- 농림 조사주간 평균기온 감소 등 영향으로 감소 전환(△1.9만명)
- ▣ (지위·연령) 상용직 58.6% 2월 역대 최고, 3~40대 · 고령층 고용률 상승
- 지위 상용직 증가폭 확대(+23.3만명), 상용직 비중 역대 최고
 - 고용有 자영업자 감소 · 고용無 자영업자 증가
- 연령 30대·40대·고령층 고용률 상승, 청년층·50대 고용률 하락
 - 청년층 고용률(44.3%, △1.7%p) 하락, 실업률(7.0%, +0.5%p) 상승
 - 청년층 취업률(50.4만명, +6.1만명)은 20대 초반 중심 증가
- ▣ (평가·대응) 취업자수가 2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하며 고용률 2월 기준 역대 최고. 다만, 내수회복 지연 · 경기하방 위험 등 불확실성 상존
- 서비스업 증가폭이 큰 폭 확대되며 취업자수 증가를 견인
 - 돌봄인력 수요 확대와 직접일자리사업 효과가 복합 작용하며 보건복지 · 공공행정업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1월 15.2→2월 23.0만명)
 - 설 이동효과('24년 2.9~12일→'25년 1.27~30일)로 경찰 조사대상주간의 조업 일수 증가하며 숙박음식업 등에서 일용직 중심 고용 개선
- 한편, 건설업 · 제조업 등 주요업종의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고, 청년 · 소상공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계속되는 모습
- * 취업자 증감(1월→2월, 만명): (건설)△16.9→△16.7 (제조)△5.6→△7.4 (비임금)△4.5→△4.1

”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고용안정 노력 지속 · 강화

- ① 일자리·건설·서민금융 등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주요 과제 신속 추진하고 추가 지원방안 지속 강구
- ②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위해 조선·철강·유화 등 주력산업 및 유망 신산업·서비스업 등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
- ③ ‘기업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 본격 가동하는 한편, 일자리 TF 중심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과제 지속 발굴·추진
 - * 2.14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경제6단체 일자리 창출 협약’을 통해 설치
 - 미취업·취업률 청년 대상 청년고용을 케어플랫폼 본격 가동하고, ‘대한민국 채용박람회(3.19~20일)’ 등 통해 취업분위기 조성·확산

2025 Global Human Capital Trends



① Deloitte, 2025년 3월 ②

③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2025 Global Human Capital Trends](#)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조직과 근로자 간 긴장(갈등) 탐색 및 전략 제시
- 조직의 변화 수용 방법
- 인공지능 기술이 업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요목차

- 일의 균형 잡힌 긴장 상태
- 인력의 균형 잡힌 긴장 상태
- 조직 및 문화의 균형 잡힌 긴장 상태

직업훈련기관 전문경영역량 고도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4년 2월 ② 이철기, 김동태, 엄기용, 신재은, 이수진

③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직업훈련기관 전문경영역량 고도화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직업훈련기관 경영 역량 강화
- 인적자원 및 마케팅 관리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성 제고 연구

주요목차

- 직업훈련정책 동향 및 직훈기관 경영역량 분석
- 국내 및 해외 직업훈련기관 역량 및 교육 관련 문헌 고찰
- 직업훈련기관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 직업훈련기관 경영역량 진단도구 개선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직업훈련 교·강사 실태조사 심층분석 및 활성화 모델 연구



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5년 2월 ② 김우철, 우혜정, 김지영, 조현

③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및 직업훈련 교·강사 실태조사 심층분석 및 활성화 모델 연구](#)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직업능력개발 훈련교·강사 실태분석
- 역량개발 관점 정책 과제 도출
- 직업능력개발 훈련교·강사 관련 정책분석

주요목차

- 직업능력개발 훈련관련 정책 및 연구 현황
- 직업능력개발 훈련교·강사 교육요구도 분석
- 직업능력개발 훈련교·강사 실태조사 요인분석
- 직업능력개발 훈련교·강사 역량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및 특성 분석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관련 심층분석

제26차(2023)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① 한국노동연구원, 2024년 12월 ② 이경희, 이지은, 신선옥, 정현상, 권의성

③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제26차\(2023\)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한국노동패널조사 개요
- 가구 총소득, 월평균 생활비 및 저축 등 가계경제 추이
- 취업자 및 실업자 비중 등 경제활동 상태
- 평균근로시간, 임금 주기 등 임금근로자의 특성

주요목차

- 한국노동패널 제26차 조사의 개요
- 조사가구의 특성
- 가계경제,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
- 임금근로자 및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 경제활동 상태의 동태적 변화
- 26차 건강 부가조사 결과 분석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3.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3.4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기(既)이수 교육훈련 인정제 전(全) 종목으로 확대
- 3.5 2025년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개시
- 3.10~4.9 2025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후보자 신청·추천 접수
- 3.24~5.22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사업 공고
- 3.31 광산근로자 전직훈련 업무협약 체결
- 4.7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
- 4.15~4.16 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ISC) 통합 워크숍



- 3.4 '25년 제1회 NCS 품질관리위원회 개최
- 3.7 제1차 지역산업인적자원개발 심의위원회
- 3.10~14 2024년도 RSC / ISC 성과평가 실시
- 3.13 제3차 부산 글로벌 인재개발 네트워크 개최
- 3.31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위원회
- 4.11 '25년 직업능력개발훈련 모니터링 고객패널 간담회 개최



- 4.1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미래 비전 정책 컨퍼런스
- 4.1~4.15 온라인평생교육원 2025년 상반기 STEP 위키 전문가 모집
- 4.16~22 능력개발교육원 2025년도 5기 전공분야 보수교육 신청 접수
- 4.21~4.25 K-디지털 분야 교직훈련과정 2차 신청 접수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4.16~4.30 2025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신청·접수
- 4.18 2024년 상반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성과평가 결과 공고
- 4.11~6.11 2025년 직업훈련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신청·접수



HRDK가 온라인으로 가요

HRDK 백배 활용법(능력개발전담주치의)

HRDK 백배 활용법

능력개발 전담주치의가 궁금해요!

HRDK가 알려드릴까요?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Q.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지원하는 내용은요?

| 공단 | |
|------------|------------------------------------|
| 지역현황 파악 | - 지역별 기업직업훈련 활성화 전략수립 |
| 타겟기업 설정 | - 참여 기업 발굴(타겟팅) (ex. 산업단지, 기업규모 등) |
| 기업HRD이음컨설팅 | DB 분석 요구 분석 성과 분석 |
| 과정개발컨설팅 | AI 표준 (주치의) 맞춤형 (전문가 지원) |
| 훈련참여 지원 | - 훈련 실행 지원 - 기업 행정 지원 |

※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모집



3월 25일(화) ~ 6월 5일(목)

◆ 신청대상

유연근무, 근로시간, 연차휴가, 일·육아 병행 등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사업장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한 사업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은 제외



◆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 누리집: www.nosa.or.kr
([메뉴] → [사업소개] → [일자혁신 및 일·생활 균형 지원]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 [신청하기])

◆ 선정절차

서면심사 ▶ 현장실사 ▶ 최종심사 ▶ 선정발표

◆ 주요 선정혜택

* 유효기간: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조사감독 면제

- ✓ 국세·관세조사 유예
- ✓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금융상 우대

- ✓ 기술보증·신용보증 우대
- ✓ 대출금리 우대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정부 지원 사업 우대

- ✓ 수출바우처 가점 부여
- ✓ 해외지사화 사업 부담금 할인
- ✓ 일생활균형 인프라 지원 우대



기타 우대

-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 ✓ 무역보험료 할인, 한도 우대
- ✓ 고용24 테마별 채용관 등



문의처 | 02) 6021-1206, 1207, 1209



고용



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KEF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KBIZ 중소기업중앙회



노사발전재단